

# 9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 국어 EBS 연계 채점도 높아...최상위권 변별 하락 우려 광주진학부장협 “영어 평이...중하위권은 어려웠을듯”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모평)가 지난해 ‘불수능’으로 꼽힌 수능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광주진학부장협의회·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9월 모평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지난해 본수능,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지난 6월 모평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독서, 문학, 선택과목 3파트 모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9월 모평에서 국어 영역은 EBS 연계율이 70~80%에 달해 연계 채점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고난도 문제가 없어 지난 본수능 대비 만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최상위권대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독서에서 사회, 기술, 예술의 3개 지문이 연계됐으며, 문학에서는 고전시가(호아곡), 현

대시(북방에서-전현웅에게), 현대시설에서는 EBS 연계교재의 수록 부분이 그대로 출제돼 시간 압박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학 영역도 길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치러진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6월 모평 대비 수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과목 문항이 6월 모평 대비 상당히 쉽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 간 점수차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고 23년부터 30번까지 선택과목 또한 6월 모평 대비 쉬웠던 것으로 풀이됐다.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1번,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 30번, 확률과 통계 28번·30번, 기

학 28번·30번이 꼽혔다.

영어 영역 역시 난도가 매우 평이해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요구하는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학습을 해 온 학생이라면 전반적으로 문항 접근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다만 반강추론 문항과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항에서는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호흡이 긴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고 집중력 있게 독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 동구 ‘기후환경 콘서트’ ‘낮춰요...’ 7일 미로센터 개최

광주 동구가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을 맞아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1시 공동 미로센터에서 기후환경 콘서트 ‘낮춰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히비스밴드와 여러날 밴드, 퓨전국악그룹 올라, 싱어송라이터 이광배 등 9개 팀이 출연한다.

재활용으로 꾸민 무대에서 환경문제를 다룬 내용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일반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미로센터 알림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재영기자



저소득층에 전달할 ‘사랑의 밀반찬’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4일 오전 북구 임동광주노년회에서 저소득세대 아동·청소년 등 돌봄 이웃들에게 지원할 ‘사랑의 밀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내년 학교 교과서에 5·18 왜곡 없어”

### 시교육청, 2022 개정 중학교 역사 7종·고교 한국사 9종 검토 일부는 5·18 구술사 기록·전일빌딩 245 총탄 흔적 등 담기도

내년부터 학교에서 쓰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 최신자료가 다양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

국사 9종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로 구성된 검토 위원들은 5·18민주화운동 과정 포함 여부, 기술 방식 등을 분석했다.

5·18민주화운동 분량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4쪽 분량으로 기술됐다.

이들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일부 교과서에는 5·18 구술사 기록, 전일빌딩245 총탄 흔적자료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이지

리베르스쿨 교과서에는 ‘40년 만에 바로잡은 5·18민주화운동 기사’가 실렸으며, 천재교과서는 ‘전일빌딩245 총탄 흔적 사진’ 자료를 담았다. 동아출판과 천재교과서는 ‘당시 사람들의 5·18에 대한 일기, 구술사 기록’을, 비상교과서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소개’ 등을 수록했다. 시교육청은 추후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지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해질 18:54  
달돋이 07:50 달짐 19:55

광주	구름조금	22/34
목포	구름조금	24/32
여수	맑음	24/31
나주	구름조금	22/35
완도	맑음	25/29
구례	구름조금	22/34
강진	구름조금	23/33
해남	구름조금	24/33
장성	구름조금	24/34
보성	맑음	22/33
순천	맑음	23/34
영광	구름조금	23/33
진도	구름조금	25/31
흑산도	맑음	25/31
고흥	맑음	23/31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 빨래 80 🚰 세차 90 🏃 운동 70

자외선 차단제 필수 야외근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수분섭취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해 앞바다	0.5-1.0	0.5-1.0
남해 서부	0.5-1.0	0.5-1.0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9월 6일(금)	☁️ (23/34)	☁️ (23/28)	☁️ (20/26)	☁️ (24/32)	☁️ (25/31)
7일(토)	☁️ (23/33)	☀️ (21/31)	☁️ (21/26)	☁️ (23/31)	☀️ (25/32)
8일(일)	☀️ (21/34)	☀️ (22/32)	☁️ (20/27)	☁️ (21/31)	☀️ (24/32)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서구, 체험형 ‘자원순환의 날’ 행사 연다

오는 7일 상무시민공원서...14개 부스 운영

광주 서구가 생활 속 자원 순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연다.

서구는 4일 “제16회 자원순환의날(9월6일)을 기념해 오는 7일 오후 3시30분 상무시민공원에서 ‘착한도시 서구 랑 RE100’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환경공단,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YMCA, 아름다운가게, 인그래픽스, 엔아이디, 아트유니버스, 케이아이에코시스템즈와 협력해 14개 부스를 운영하고 자원순환가게 정착을 위해 공헌한 자원순환관리사 18명을 표창한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재활용품 보상장터 ▲재활용 퀴즈한마당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RE:필 자판대 ▲1회용컵으로 테라리움 재배하기 ▲커피찌꺼기로 비누바 만들기 ▲타폴린 카드리깅&키링 만들기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전시 및 체험 ▲태양전지 및 원목으로 로봇 만들기 ▲폐현수막으로 만든 캔버스에 그림 그리기 등이다.

행사에서 일상에 쉽게 버려지는 병뚜껑을 활용해 ‘착한도시 갑탄서구’를 표현하는 오브제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주성학기자

그 여자 | acrylic on canvas | 30x30cm | 2021

그 여자 | acrylic on canvas | 40x40cm | 2022

우연한여행자 | acrylic on canvas | 116.8x91cm | 2018

그 여자 | acrylic on canvas | 45.5x53cm | 2020

홍석발이 | acrylic on canvas | 72.7x60.6cm | 2013

##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다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나의 작품들은 내 삶에서 태어난다.”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자아성찰을 하며 치유하는 작가

나는 어떤 이름이나, 페르다임 등 특정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로서의 형태는 내게 제한과 한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며 만들어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 역량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 시켜야 된단 말인가?

나의 작품들은 현실을 마주하며 타인과 자아의 관계에 대한 사색과 내면의 성찰로 그동안 쌓이고 다듬어진 관계의 소통으로서의 ‘나 자신’을 문제화 하였다. ‘그 여자’는 바로 나 자신이며 자전적인 이야기를, 삶의 외한 감정들의 파편들로 나의 내밀한 독백을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한다. 작품들의 얼굴 형상은 작가 나 자신의 자화상이다. 내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인간 정서를 표현한 것이 예술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라 하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소재로써 나의 자전적 이야기를 선택하였다. 깊숙이 숨겨진 비밀과 삶이 안고 있는 감정들을 편견 없이 표현하고, 반지르르한 외관 저편에 자리 잡은 사람과 상처, 누구나 가지고 있을 양면성과 욕망과 꿈, 감춰져 있을 여러 측면을 있는 그대로 표출시키고자 한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삶 속에서, 요즘 자전적인 내용으로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으며, 책잡히지 않고 별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려 한다. 이것은 작품의 주된 요소이며, 또 다른 세계로의 물고기를 뜨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나는 또 다른 ‘나’를 찾고 스스로를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의 극복의지를 내비치는 치유의 수단이며 바로 자아성찰의 과정인 것이다.

**개인전** 16회 (광주, 서울, 안산, 전주, 화순)  
**단체전** 250회 (광주, 담양, 보성, 안산 등)  
**레지던시프로그램** 2015 예술인창작스튜디오 다다 레지던시 입주작가 2010 광주시립미술관 북정창작센터 제1기 입주작가 2009 staart 스튜디오 입주작가 2006-2007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